

대전·세종·충청 사회학포럼 제31회 콜로키움

텍스트 마이닝으로 탐색한 ‘노잼도시’가 된 대전의 ‘힙플레이스’

일시 |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

발표 | 주혜진(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)

토론 | 전 준(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)

참여 |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 병행(참여 방법은 2면 참조)



대전·세종·충청 사회학포럼



충남대학교
사회학과



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

국립대학육성사업

● 발표자 | 주혜진(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)



주혜진은 지방정부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일한다. 미국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, 도시 대전의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인구 관련 정책을 주로 연구해 왔다.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원하는 삶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품는 공간에 관심을 두게 됐다. 요즘엔 도시의 장소성과 정동 Affect 형성을 주제로 한 연구를 '재미있게' 하려고 애쓰는 중이다.

● 발표내용

‘대전시는 어쩌다가 ‘노잼도시’가 되었나’란 궁금증에서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이 ‘그래서, 대전시는 얼마나 ‘힙’한가’까지 이어졌다. 이 강연은 두 가지 연구 결과물에 기초한다. “대전은 어떻게 ‘노잼도시’가 되었나: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연결망으로 본 ‘장소성’ 소비「한국사회학」제56집 제4호 (2022년)”와 “소셜 미디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대전의 힙·핫플레이스 개념 형성 분석, 대전세종연구원 기본연구(2022년)”다. “노잼도시”와 “대전 힙플레이스 핫플레이스 힙스터”를 검색어로 각 5,875건, 7,772건의 블로그 문서를 수집해 Python으로 분석했다. 노잼도시와 대전의 힙하고 핫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블로그 말들 속에서 주요어를 추출하고, 주요어 간 관계 형성, 토픽의 시계열 흐름과 경합 양상을 살펴봤다. 지방 도시 대전의 ‘납작한 정체성’이 소셜 미디어 유저들의 의례 형태와 결합하면서 더 휘발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. 또한, 낯설고 새로운 재미를 빠르게 좇는 소셜 미디어 유저들의 장소 소비 양상과 이 모든 재미와 힙함의 기준이 결국 ‘서울’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.

● 온라인 참여 방법

- ZOOM 설치 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
- 링크: <https://cnu-ac-kr.zoom.us/j/86870236394>
- QR 코드



- ZOOM은 19시 1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.

● 현장 참여 방법

- 장소: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(W12-2) 405호

